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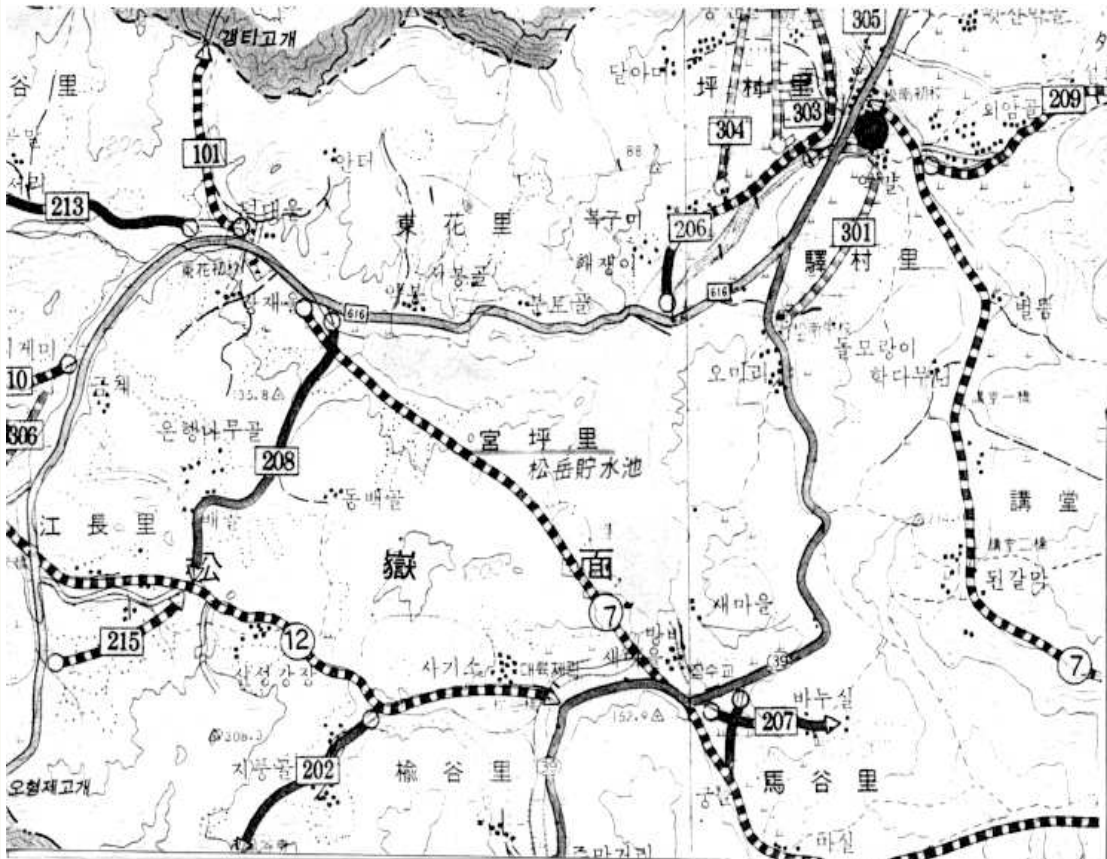
궁평리·宮坪里

궁평리·宮坪里

< 구연자 : 아산시 송악면 궁평리 권 학수 氏 (83세) >

궁평리는 송악면의 한마을로 하나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옛날 이곳에 궁(宮)의 논이 많으므로 궁들, 궁틀 또는 궁평리라 부르게 되었다. 송악저수지 끝부분에 위치한 마을로 가구수도 적다. 마을 옆에는 송남 휴게소가 자리하고 있으며, 맞은편으로 마곡리가 있다. 마을이 적고 농경지 면적이 다른 마을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마을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하고는 있지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되지 못한다. 인구는 총 65명으로 28호가 살고 있으며, 본래 온양군 남하면의 지역으로서 궁틀 또는 궁평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방산리를 병합 궁평리라 하여 아산군 송악면에 편입되었다.

< 궁평리 위치도 >



⊗ 궁들마을 (궁평리)

궁평리는 궁들, 방미, 서산리로 구분되며, 궁들 마을의 유래는 궁의 논이 많다하여 불리어진 이름이며, 방미 마을은 송악저수지 남동쪽에 있는 마을로 산의 모양이 아름답다 하여 유래 되어졌으며, 서산리는 서산 밑에 있는 마을이라 불리어진 이름으로 궁들 마을은 예전에는 논이 많았으나 현재는 그 논들이 모두 저수지가 되어 버린탓에 농경지 면적이 매우 적다. 마을은 작지만 두 개의 자연부락으로 나뉘는데 도로변쪽에 있는 마을을 궁들이라 흔히 부르고 저수지 안쪽에 있는 마을을 방미라 한다.

< 조사당시 궁평리 마을 관련 사진 >



1) 위 치

궁들마을은 오미니 고개를 넘어 잘 포장된 39번 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송악휴게소가 나오는데 휴게소를 못미쳐 저수지가 있는 우측으로 자그마하게 형성된 마을이다. 마을 앞쪽으로는 마곡리가 위치하고 있다.

2) 현 황

궁들마을의 인구는 총65명으로 남자 28명, 여자 37명이 살고 있으며, 가구수는 28호로 자그마한 부락이다. 이 마을의 주민들의 95%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일부는 비농가이다.

- 인구 현황

구 분 마 을 명	계	남	여
궁들마을	65명	28명	37명

- 생 업

구 분 마 을 명	계	농 업	기타
궁들마을	100%	95%	5%

궁들 마을의 농경지 면적은 논 11.4ha, 밭 2.4ha로 농경지 면적이 다른마을에 비해 많은 차이가 있으며, 그 이유는 저수지가 생겨 예전에 짓던 농경지가 저수지로 포함되었기 때문

이다.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양수기, 분무기, 이앙기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밖에 보유수는 적지만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마을의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 1개소밖에 없다.

- 농경지 현황

구 분 마 을 명	계	논	밭
궁들마을	13.8ha	11.4ha	2.4ha

- 문화시설

구 분 마 을 명	계	마을회관	기타시설
궁들마을	1개소	1개소	-

궁들의 성씨별 분포를 보면 김씨 25%, 신씨 14%, 이씨 18% 그밖에 성씨들이 고르게 살고 있으며, 연령층은 50대에서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김 씨	신 씨	이 씨	기 타
궁들마을	28호	7호	4호	5호	12호

- 최고령자

궁들마을의 최고령자는 조 만동 할아버지로 올해 86세의 고령이시다.

3) 자연경관

궁들마을 옆에는 온양에서 저수지로서는 가장 큰 송악저수지가 있으며, 경치는 아름답다. 이곳에는 낚시꾼들이 자주 찾아오고 있다. 마을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마을이 자그마하다. 마을 옆으로는 송악휴게소가 생겨 많은 사람들이 들려가고 있으며, 집 모양들은 대부분 시골 전형적인 형태이다.

4) 마을 변천과정

궁평리는 본래 온양군 남하면의 지역으로서 궁틀 또는 궁평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방산리를 병합 궁평리라 하여 아산군 송악면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궁들마을에 처음 터를 잡고 산 성씨로는 강씨라고 하는데 현재 강씨가 11대째 이곳 마을에 살고 있다. 강씨가 한가구 밖에 안되는데 마을에 집은 있으나 외지에 나가 있어 가끔 마을로 내려온다고 한다. 1세대를 30년으로 기준한다면 마을은 서기 1670경 약 330여년이 지난 것으로 추측된다.

6) 지 명

·궁들 : 궁의 논이 많음으로 생긴 이름. 지금은 저수지로 많이 들어갔음.

·방미 : 송악저수지 남동쪽에 있는 마을로 산의 모양이 아름답다 함.

·부흥바위 : 방미 위쪽에 있는 마을. 부영바위가 있음.

·서산리 : 서산리 밑에 있는 마을.

·서산 : 방미 서쪽에 있는 산.

·궁들 : 궁평앞에 있는 들. 궁의 논이 많았는데 모두 송악저수지로 들어갔음.

·부영바위 : 부흥바위에 있는 바위. 부영이가 새끼를 쳤다하여 불리게 됨.

·정골 : 마을 뒷산 밑의 지명으로 옛날 이곳에서 그릇을 만들었다고 함.

·송악저수지 : 궁평리, 역촌리, 평촌리, 동화리에 걸쳐 있는 만수량 1,913천인 저수지. 송악면의 이름을 땀음.

7) 전 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루에 산신제를 지내고 있는데, 역사는 언제부터인지 모를만큼 오래 되었다고 하며, 마을 사람들끼리 대동계를 만들어 애경사시 서로 돕고 있었다.

9) 특별히 소개할 만한 인물

10) 종교단체

작은 마을이 되어서 특별한 종교단체는 없고, 무속신앙이 아직도 강해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11) 공장현황

궁들마을은 공장이 전혀 없다.

12) 마을의 특성

마을이 작고 옛날 저수지가 생기전까지는 70여호정도 되던 마을이 저수지가 생기면서 흩어지게 된 것이다. 마을이 작은만큼 매우 조용하며, 사람들이 대부분 외지로 나가 생활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곳 저수지로 인해 발전은 어려울것으로 보이며, 점차 계속 마을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